

# 電力危機에 直面한 이탈리아

## 原子力 推進으로 方向轉換

유럽 各國에서는 原子力政策이 각 나라마다 政治問題化되고 있는 가운데, 石油價格의 昂騰에 따른 不況이 심해지면서 野黨의 態度와 輿論에 微妙한 變化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는 昨年末, 계속 遲延되어 왔던 新에너지計劃을 政府가 發表하게 되었고 石油輸入의 削減을 위해 國內資源(石炭등)의 開發, 原子力推進(1990년까지 石油 1千萬噸相當量), 에너지節減의 三大目標를 확정한 데 이어, 最大政黨(野黨)인 共產黨이 石炭火力에는 問題點이 많다고 하여, 原子力 4百萬KW의 即時着工을 要求하는등 政府보다 앞장선 原子力優先姿勢를 分明히 밝혔다. 그 背景에는 最近 全國적으로 停電이 잦아지면서 비롯된 電力危機에 處해있는 點을 들 수 있다. 停電이 日常化된 原因에는 直接的으로는 금년 겨울의 異常추위에 따른 電力需要增加와 水力댐의 貯水量減少에 있지만, 그 實情은 보다 深刻하며, 電源開發 특히 原子力開發의 오랜 沈滯로 인한 供給豫備量의 不足이 根本的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稼動原子爐 3基는 모두 60年代 前半에 運轉을 開始한 것으로서, 점차 老朽化돼가고 있다. 그 出力合計는 50萬KW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故障修理, ECCS(緊急爐心冷却裝置)의 改造등으로 인하여, 3基의 原子爐가 모두 停止되었던 것이 金년 겨울의 供給事情을 더욱 惡化시킨 原因의 하나였다.

이탈리아에는 現在 建設중인 大型爐가 3

基(合計出力 280餘萬KW)가 있다. 그러나 그 進捗狀況이 느리고, 칼소우爐(86萬KW, BWR)등은 77年度에 完工한 후 3年間이나 “慎重히”試驗을 계속하던 끝에, 겨우 今年부터 全出力運轉을 하게 되었으나, 運轉許可는 겨우 3개월 뿐이다. 그 다음 節次로 報告書作成, 檢討, 電力會社ENEL로부터의 運轉計劃書提出, 原子力委員會의 承認, 工業省의 運轉認可라는 까다로운 節次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慎重히 다루어지는 原因에는 環境主義者들의 強力한 反撓과 특히 79年の 美國 트리마일섬의 原電事故에 있었다. 事故發生후에 就任한 콜롬보原子力委員長은 「一般人에게 모든 情報를 提供하여 問題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公開討論한다」는 方針下에 꾸준히 콘센서스製作에 힘써 왔다. 예를 들면 칼소우 原子爐의 경우도 耐震性에 말썽이 생기면 7個月 間이나 運轉을 中斷하고, 專門委員會에서 檢討하다가 「地層에 異常없다」는 報告를 받은 후에 運轉(試驗)을 再開하고 있다. 政府의 新에너지計劃發表를 보면, 이러한 輿論造成的 效果가 점차 침투하여 이제 機會가 왔다고 情勢判斷을 한 것 같다. 環境派의 批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有權者의 3분의 1의 支持를 받고 있는 共產黨의 明確한 態度는 이탈리아原子力の 하나의 轉機가 될지도 모른다.